

동화 같은 이야기



안 명 기
시인·수필가

엄마는 민수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빠는 지금까지 술을 달고 삽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서울에 사는 둘째 이모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이모를 엄마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때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던 이모였기에 모르는 사람들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수군거립니다. 아니, 처음부터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민수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수가 일곱 살 되던 해에 이모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부와 이모가 민수를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다짐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아빠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모가 아빠라고 해서 그렇게 알 뿐입니다. 아빠는 결혼한 이모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데리고 갑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따라 내려간 곳은 안성에 있는 어느 조그만 마을입니다. 아빠는 동네에서 외파로 떨어진 오리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먹고 자고 씻는 것은 성냥갑만한 컨테이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컨테이너 주위에는 온통 술병뿐입니다.

아빠는 엄마가 죽고 민수를 이모가 데려가자, 술병을 옆구리에 차고 이곳저곳 떠돌다가 이곳 안성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동네 이장 김씨 아저씨가 박씨네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해준 것입니다.

늘 술기운으로 일을 하지만 농장 주인인 박씨 아저씨는 아빠를 그만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꾼 구하기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농장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아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만나기 전부터 공사장에서 목수 일을 한 덕택에 농장에서 계사 짓는 일은 물론, 심지어 집수리, 보수 등등 모든 것은 다 아빠의

아빠의 얼굴에는 아주 편안한 미소가 흐릅니다.

아빠는 민수의 입학통지서가 젖지 않도록 품 속으로

더욱 깊이 갈무리합니다.

현동이는 아빠 얼굴을 앞 두 발로 포근히 감싸며 엎드립니다.

뭉칩니다. 술은 달고 살지만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았고, 말이 없는 편이라 동네 사람들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제, 미안하데이. 민수 학교 가기 전에 한번 보제이.”

이 말과 함께 주소 적은 종이를 이모에게 던져 주고, 민수를 데리고 이곳으로 내려온 지도 어느덧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많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동안은 늘 혼자입니다. 동네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래의 아이들을 사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보낼 형편은 더더욱 안 되었지요. 친구라고는 오리, 닭, 오골계, 거위 등 온통 짐승들 뿐입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민수가 이곳 농장으로 오고 나서 두 달쯤 후에 태어난, 다섯 달 된 풍산개 현동이입니다. 현동이는 민수가 어딜 가는 항상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아빠는 농장일을 조금 일찍 마친 날은 마을로 나가곤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갑니다. 마을 어귀 가게에서 동네 사람들과 막걸리도 마시고 어울리다 올 때쯤이면, 막걸리 서너 병은 꼭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아빠는 민수가 이곳에 온 후로 술을 많이 줄였습니다. 민수는 아빠가 늦게 오는 날은 현동리와 함께 농장 밖으로 마중을 나가곤 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말쯤입니다. 그날도 아빠는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점심을 먹은 후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아빠! 어디 가?”

“와 궁금하노? 이놈의 자숙.”

아빠는 어느 날부터 민수를 볼 때마다, ‘이놈의... 자숙’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민수도 그런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니도 내년이면 학교 가야제. 이 아빠 면사무소 댕기올기다.”

내년에 민수 입학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농장을 나섭니다. 그런데 일찍 나간 아빠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동아, 아빠가 또 늦네. 우리 마중 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동이는 이미 농장 밖으로 향합니다.

“현동아, 같이 가.”

현동이는 민수의 말에 아랑곳없이 연신 쿵쿵거리며 앞만 보고 달립니다. 민수와 현동이는 농로를 따라 마을을 향해 한참을 걸었습니다.

낮에 용광로처럼 뜨겁던 불별이 잠든 틈을 타고 천천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달은 없어 주위는 어두웠지만, 맑게 갠 초가을의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물론 먼저 발견한 것은 흰둥이입니다.

“컹컹!”

민수도 아빠임을 알아챱니다.

“아빠!”

가까이 다가온 아빠는 민수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아니, 우에 나왔노? 자지 않고.....이놈의 자식.”

“아빠 걱정돼서.....오, 술 냄새.”

“하, 이놈의 자식.”

그러고는 민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옆에 놓인 작은 물체가 민수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이거 말이가? 자전거 아이가, 자전거.”

“자전거는 왜?”

“하 이놈의 자식..... 니 내년에 학교 가든 걸어 땡길끼가? 자전거라도 타고 땡기야 않겠노? 그 팔라본 지금부터라도 배아야제. 그래서 내 큰 맘 먹고 하나 샀는기타.”

“아빠, 그럼 이 자전거가 내 거야?”

“이놈의 자식..... 그라모 이 작은 자전거를 이 애비가 우에 타겠노?”

“아빠, 감사합니다.”

“하, 이놈의 자식. 종긴 좋은가베.”

어느덧 이들은 마을 어귀로 흐르는 작은 천변을 걷고 있습니다. 흰둥이는 뒤에서 연신 꼬리를 흔들며 따라옵니다.

“민수야! 요 물가에서 발 좀 담그고 가까?”

“응. 아빠 맘대로 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둘의 발등 위로 맑은 개울

물이 시원스럽게 흘러갑니다.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정답게 앉아보는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차츰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6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야, 너는 이 애비가 참말로 많이 밍제?”

“.....”

“내도 그때는 와 그랬는지 모르겠데이. 니 낳고 니 에미 죽어뻘께 니까지 미웠는기타. 내는 니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래 가고 나니 마 내 정신이 후까닥 가쁜기다. 니 이모가 안 데리고 갔으면 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끼다. 내는 미워해도 절대로 니 이모 은혜 이자뻘면 안 되는기타. 알겠나?”

“.....”

아빠는 ‘휴우’ 하고 길게 한숨을 내뿜고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도 니가 이모한테 가뽀고 나서 내 얼마나 후회한 줄 아나? 내도 니가 내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와 니가 안보고 싶었겠노? 이모 생각하고 남거든 내도 쪼매만 생각해도.....에잇, 치아뻘타.”

“.....”

이때 이곳저곳에서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을 내며 날아다닙니다.

“민수 니 자노?”

“아니, 아빠.”

“그라모 이 애비가 한 말 들었노?”

“아빠!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어린 니가 우에 알겠노? 그래도 오늘 안 하모 영영 못할 것 같아서 했는기타, 이놈의 자식.”아빠는 유난히 빛나는 별을 가리킵니다.

“민수야, 저 하늘 한번 보거래이.”

“어디, 아빠?”

“저기, 저어기 저 별 말이다. 니 안보이노? 이놈

의 자식.”

“보여 아빠, 하늘에서 제일 빛나는 별.”

“그래 이놈의 자식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저 별이 바로 니 엄만기타.”

민수는 입을 삐죽 내뺍니다.

“치. 거짓말. 아빠가 어떻게 알아?”

“알제. 내는 알제. 니 엄마 눈이 저렇게 밝게 빛났거든.”

“정말? 아빠, 엄마가 그렇게 예뻐?”

“그럼! 이랬제. 암, 이쁘고말고. 마음은 또 울때나 이랬는줄 아나?”

“.....”

“나같이 못된 놈이 옆 동네 처자 업어간다고 동네 청년들한테 욕 많이 먹었데이.”

“.....”

“내도 니 엄마하고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되었으니 니 애미는 천사다, 천사.”

“.....”

“천사는 별 아이가. 그러니 니 애미는 저기서 가장 반짝이는 별인기타. 힘들고 어려우면 저 큰 엄마별을 보거래이. 그러모 꼭 너를 도와줄끼다.”

“.....”

“니 엄마가 5년 만에 니를 낳을 때 온 세상을 다 업었다CKET거든. 그란데 니 말 와 안 들어주겠노?”

“.....”

“니 내말 듣고 있노?”

“.....”

“민수야! 이놈의 자식.”

민수는 어느새 아빠 어깨에 기댄 채 자고 있습니다. 아빠는 민수를 가슴에 안고 볼에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에게 난생처음 하는 입맞춤입니다.

그러고는 한 팔로 민수를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오늘 산 민수의 새 자전거를 끌고 농장으로 향

합니다. 아빠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쭈그리고 앉아 있던 흰둥이도 그제야 일어나 꼴랑꼴랑 뒤를 따릅니다.

민수는 자전거를 제법 잘 타고 놀니다. 처음에는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물론 그 뒤를 흰둥이는 한시도 놓치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그날 이후로 아빠는 술을 끊었습니다. 더 기쁜 것은 아빠가 사다준 책을 통해 민수가 한글을 깨우친 것입니다.

“우리 민수, 이제 아빠 이름도 제법 잘 쓰는구마.”

“응, 아빠. 나 이제 글자 다 안다.”

“그럼도 니 엄마 이름도 쓸 수 있겠노?”

“치, 그것도 못 쓸까봐? 내가 글자 알면서 가장 먼저 배운 글잔데.”

민수는 연필에 침을 칩칙 바른 후에 또박또박한 자 한 자 씁니다.

- 박 미 숙 -

“봐봐, 맞지? 엄마 이름?”

아빠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하, 이놈의 자식. 언제 그리 마이 깨우쳤노? 똑똑하데이..... 니 언제 그리 많이 배웠노?”

“아빠, 나도 조금 있으면 학교 가잖아.”

“하모, 니도 쪼매만 있으면 학교 가제. 니 엄마 있으면 무척 좋아할끼데.....”

“아빠 또 그 소리.”

“이놈의 자식 알았데이, 이제 안 할끼다.”

“아빠! 내가 얼른 커서 돈 많이 벌면 아빠 좋은 집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듣고 있던 아빠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빙그레 웃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키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할 날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빠는 조금 일찍 농장일을 끝낸 후 마을로 나간다고 합니다. 입학 통지서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민수야, 고맙데이. 한데 니 돈 벌어서 내 다 사주면 니는 어떡할끼고?”

“헤헤헤, 아빠! 아빠하고 영원히 같이 살면 되지?”

“하! 이놈의 자식 보게..... 민수야, 이리 와보거라.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

아빠가 두 팔을 벌이자 민수가 아빠 품으로 파고듭니다.

“아빠.”

“고맙데이, 아빠 아들이 돼줘서.....”

아빠와 민수는 한동안 꼭 안은 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살짝 밀어냅니다.

“아빠 나갔다 올끼다.”

“응. 그런데 일찍 와야 돼, 아빠.”

“하모, 내 니 보고 싶어서 금방 올끼다.”

민수는 아빠가 동네로 나가자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보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온통 이름 모를 꽃으로 뒤덮인 정원은 너무 넓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거닐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록달록한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부신 옷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아름답고 넓은 정원에 모두 여자들뿐입니다. 남자들은 아무런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벌과 나비들이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쏙 비칩니다. 민수는 그곳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너무 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정원을 거닐던 많은 여자들이 빛을 향해 두 줄로 나란히 섭니

다. 그 사이로 일곱 색깔의 무지개가 하늘로부터 나란히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 민수는 이토록 아름다운 광경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답고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민수는 저도 모르게 가볍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하늘의 천녀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봉황 모양의 가채머리를 하였고, 온몸에는 황금빛 날개옷을 걸친 천녀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인이 일곱 빛깔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유난히도 검은 머리를 길게 땅아 푸른 광채가 나는 쪽빛 비녀로 쪽을 지은 아름다운 여인 둘이서 다소곳이 두 손을 모은 채 뒤따르고 있습니다.

황금빛을 띤 아름다운 여인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자, 양 옆에 있던 수많은 여인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합니다. 그제야 여인의 얼굴에서 황금빛이 사라집니다. 양 볼이 볼그레한 여인의 얼굴을 마치 아주 잘 빛은 조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순간 민수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신이 항상 그리워해왔던 엄마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어..... 엄마.”

여인은 두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사뿐사뿐 다가오며 민수를 향해 두 팔을 한껏 벌립니다. 민수는 달려가 여인의 품에 안깁니다.

“어,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와? 엄마 민수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어디 보자, 우리 아들 민수. 많이도 컸구나..... 이 엄마 많이 원망했지?”

엄마는 연신 민수의 얼굴에 볼을 비벼줍니다.

“엉엉.....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엄마도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어느새 엄마의 두 볼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엄마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제는 아무 데도 안 갈 거지?”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응? 엄마. 꽤.....괜찮아 엄마, 지금 대답 안 해도..... 아이 좋아, 우리 엄마.”

그제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는 민수 없으면 못 살아. 이제부터 엄마는 민수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정말? 아이 좋아라. 이제 엄마, 아빠, 민수,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사는 거지? 그렇지?”

“그래. 이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아빠와 민수, 그리고 이 엄마와 아주 오래오래.....”

“응, 엄마. 나도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엄마는 팔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민수의 손을 잡고 살며시 끌어당깁니다. 민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민수는 엄마가 손을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무지개 사다리에 막 올라타려는 순간, 민수는 퍼뜩 정신이 듭니다.

“어..... 엄마, 잠깐만, 아빠가 아직 안 왔잖아.”

엄마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빠는 먼저 와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을걸.”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 떼어놓고 먼저 갈 리가 없어. 잠깐 기다려, 내가 데리고 올게.”

민수가 팔을 빼려고 했지만, 엄마는 민수의 손을 더욱 짝 잡습니다.

“민수야, 시간이 없단다.”

“안 돼,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갈 거야.”

“민수야, 엄마 말 들어야지.”

“엄마, 조금만 기다려. 아빠 데리고 금방 올게.”

“안 돼. 시간이 없대도.....”

민수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엉엉..... 불쌍한 우리 아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아빠와 같이 갈 수 있게 해줘. 응? 엄마.....”

민수는 다시 힘껏 팔을 뻗는다. 그제야 엄마는 짝 잡았던 팔의 힘을 스크르 풀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사다리에 오르며 통곡을 합니다.

“으흐흐..... 우리 민수 불쌍해서 어떡해. 민수야.”

순간 민수는 다시 엄마를 향해 달려갑니다.

“안 돼, 엄마, 가지 마! 엄마 없는 집이 싫단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으흐흐, 불쌍한 우리 민수.....”

민수는 더욱 크게 울며 엄마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달려가면 갈수록 엄마는 더욱 멀어 집니다. 무지개다리도 서서히 걷히며 엄마의 모습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아, 안 돼 엄마! 어어어엉..... 금방 아빠 데리고 올게. 여기서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이제는 엄마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엄마의 슬픈 음성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민..... 수..... 아.....”

“엄마!”

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납니다. 온몸은 온통 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민수는 주위를 한번 둘러봅니다. 희미한 전등불 아래 어느 곳에도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벽시계는 이미 새벽 한 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민수는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런 날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민수지만 웬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계속>